지역개발연구 제53권 제3호, 2021년 12월, pp.125-160
The Studies in Regional Development, Vol.53, No.3, 2021
http://dx.doi.org/10.35526/srd.2021.53.3.005

섬 관광에 대한 관광자의 위험지각이 여행행동에 미치는 영향*

– 지각된 유용성과 용이성의 집단 간 차이를 중심으로 –

이 진 의**·김 남 조***

본 연구는 섬 관광에 대한 관광자의 위험지각이 여행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하였고, 이와 더불어 지각된 유용성과 용이성 요인을 적용하여 현대인들의 행동 패러다임인 스마트폰의 활용영향을 실증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섬 관광에 대한 관광자의 위험지각은 태도와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태도와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지각된 행동통제와 방문의도 간 높은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섬 관광에 대한 관광자의 위험지각과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간 지각된 유용성과 용이성의 집단 간 차이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섬 관광에 대한 관광자의 위험지각에 따른 불확실성의 해소는 섬 관광활성화를 위해 가장 근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과제임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섬 관광개발 및 활성화 정책을 논의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주제어 : 섬 관광, 위험지각, 계획행동이론, 지각된 유용성과 용이성, 방문의도

Ⅰ. 서론

섬은 환해성과 격절성, 협소성 등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접근성이 낮은 반면, 훼손되지 않은 자연환경과 섬 주변해역의 다양하고 풍부한 해양생물, 그리고 섬의 고유하고 독특한 역사·문화 등은 관광활동을 위한 공간적 가치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으로도 가치가 크다(해양수산부, 2018).

이러한 이유로 실제 섬 지역 관광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섬 지역 관광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1,167만명에서 2016년에는 1,172만명, 2017년에는 1,319만명으로, 2015년에 비해 2017년에는 12.5% 증가하였다(해양

* 이 논문은 주저자의 박사학위논문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작성하였음
** 주저자, 한양대학교 관광학 박사 E-mail: lje_1107@daum.net
*** 교신저자,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E-mail: njkim@hanyang.ac.kr

수산부, 2018). 섬 관광자의 증가는 섬이 지닌 특성과 관광활동의 공간적 가치와 더불어 교통수단의 발달과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 중시,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건강과 자연·생태자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결과로 볼 수 있다(송재호·김향자, 2018; 이진의·강신겸 2013).

섬 관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섬 관광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섬 관광 활성화 측면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현대사회의 특성에 따른 관광자의 섬 관광에 대한 위험지각과 방문의도 간 영향관계 관점의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위험사회(risk society)'라고 일컬어지는 현대사회에서 위험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중요하며 필요성도 높다(Beck, 2014). 위험은 관광의사결정에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왜냐하면 관광자들은 위험에 노출되면 관광일정 취소하거나 관광목적지를 변경하기도 하고, 야외활동 자체를 자제하는 등의 행동결과를 보이기 때문이다(김재호, 2016; 조승아·김상운, 2018). 본 연구는 관광자가 지각하는 섬 관광에 대한 위험요인의 파악과 그에 따른 방문의도를 살펴봄으로써, 섬 관광과 관광자가 지각하는 위험의 관계성을 규명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 판단된다.

한편 현대사회에서 인터넷과 디지털 환경은 현대인들의 행동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2019)의 '2018넌 인터넷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만 6세 이상 인구의 91%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다. 스마트폰은 이동성, 휴대성, 정보성, 동시성, 끊임없는 연결성이라는 특성을 통해 현대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관광자의 행동의도에도 영향을 미쳐 스마트폰과 무선인터넷 기반환경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연구 또한 증가하고 있다(정남호·구철모, 2013; 조미나·차재빈, 2017; Wang, Park & Fesenmaier, 2012).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사용함에 있어서 인터넷의 속도가 느리거나 사용이 제한된 상황 등에서 사용자는 위험을 지각한다(Dayour, Park & Kimbu, 2019; Park & Tussyadiah, 2016). 특히 섬 지역은 스마트폰과 무선인터넷 기반시설이 도시지역에 비해 열악한 환경으로(조선일보, 2019.03.18.), 관광자의 여행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현대사회의 관광자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섬 관광목적지에서 스마트폰의 사용에 따른 기술적 위험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즉, 스마트폰 사용환경에 대한 관광자의 지각된 위험이 여행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는 계획행동이론의 확장모형으로, 섬 관광에 대한 관광자의 위험지각과 섬 관광목적지 방문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며,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섬 관광산업의 위험요인 개선과 지속가능한 섬 관광 발전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 사료된다.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1. 섬 관광

‘섬’은 사전적 의미로 ‘주위가 수역으로 완전히 둘러싸인 육지의 일부’라고 한다(표준국어대사전). 한자어나 영어의 단어는 우리말보다 복잡하다. 한자어에서는 도(島), 서(嶼), 점(苫), 초(焦)로 구분하여 지칭하고 있으며, 영어에서도 island, islet, isle, rock으로 나누어 일컫는다(김향자, 2013). 지리학적으로는 ‘대륙보다는 작은, 물로 둘러싸인 육지지역’으로 우리말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학술적으로는 섬과 바다를 일체성의 관점에서 바다는 탈경계의 공간이며 섬은 교류의 공간으로(강봉룡, 2014), 섬사람들의 생활과 소통의 공간으로(김준, 2011; 최성환, 2013), 인간과 자연의 생명력을 이어가는 정서적 안정을 주는 공간으로 논의되었다(김선태, 2015). 이와 같이 섬은 바다로 둘러싸인 지리적 고립성 외에도 자연생태계와 고유한 역사와 독특한 생활문화 등 다원적 의미와 가치가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섬 관광은 자연적 특성과 함께 사회·문화적 특성을 관광의 요소로 한다. 특히 섬 관광은 본원적 특성인 지리적 고립성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송재호·김향자, 2018). 섬 관광의 공간적 구분은 내륙과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으로, 지리적 특수성인 격절성과 협소성, 환해성을 느낄 수 있는 지역이다. 섬 관광의 대상은 섬 지역의 자연자원, 역사·문화자원이라는 기본적인 체계가 이루어지고, 어촌생활을 중심으로 섬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김민철, 2007). 결국 섬 관광은 바다로 둘러싸인 섬 지역의 내륙과 해변, 해중, 해저, 그리고 어촌의 모든 소재적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관광욕구를 충족해가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강신겸, 2012; 김향자, 2013; 이진의, 2013).

섬을 찾는 관광자들은 섬의 특성이 잘 보전된 곳에서 머물며 그곳 생활을 체험하고 즐기기를 원한다. 이에 따라 섬 관광의 특성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 강신겸(2012)은 고유성과 계절성, 접근성, 가변성, 고비용성을 섬 관광의 특성으로 구분하였고(김영준, 2011; 서용건·고광희·김민철, 2010; 이진의,

2013), 김준(2008)은 섬 정체성(island identity)의 구성요소인 경관자원과 문화자원이 섬 관광자원이 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서 섬 관광활동이 결정된다고 보았다(조진상, 2009). 오상훈·고계성(2006)은 소규모성과 지리적 고립성, 고유문화와 상이함, 삶의 여유, 원시적인 환경 등을 제시하였다(심진범·김지선, 2017; Colin & Baum, 1995; Lockhart, 1997). Butler(1993)는 육지와 바다 간 경계 개념의 관점에서 물리적 격절성과 문화적 차이, 매혹적인 기후와 환경, 정치적 자율성을 섬 관광의 핵심요소로 제시하였다.

반면 섬 관광은 내륙관광과는 다른 한계도 존재한다. 첫째, 섬은 관광개발이 소규모(smallness)로 이루어지며, 둘째, 원거리성으로 인해 고가의 교통비를 수반하고, 셋째, 생활과 생산기반의 미비한 결과로 인해 과소화현상이 나타난다. 넷째, 생태계의 취약성(vulnerability)과 소규모 경제는 가장 큰 한계점 중에 하나이다(손대현, 2006; Hampton, 2003). 이러한 한계점들은 섬을 찾는 관광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야기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섬 관광이 지닌 가치가 손실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섬이 지속가능한 관광목적지가 되기 위해서는 섬을 찾는 관광자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Lockhart, 1997).

2. 위험지각

위험(risk)은 경제학 분야에서 먼저 논의되어 왔다. 소비자 행동분야에서는 ‘지각된 위험’이라는 개념으로 1960년 Bauer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되었고, 이후 여러 학자에 의해 위험지각에 대한 개념이 활성화되었다. Bauer(1960)는 어떤 상황에서 개인의 지각은 행동에 영향을 주며, 지각이 주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위험은 상대적임을 강조하였다. 위험은 대부분 상품구매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부정적 결과, 예상되는 손실 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Dowling & Staelin, 1994; Stone & Winter, 1985), 지각은 오감(五感)을 통해 과거경험과 기억에 의존해 현재 및 미래의 인간행태를 연결시켜주는 각성이나 사고과정을 포함한다(임승빈, 1999).

위험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위기(crisis)와 재난(disaster), 위해(hazard) 등이 있다. 위기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지고 있는 상태로, 위험과 위기의 구분은 현실화의 여부와 시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행정안전부, 2010). 한편 재난은 뜻밖에 일어난 재앙으로 ‘실질적 피해’라는 의미를 가진

다. 위해는 재난과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외부적 요인으로, 위험을 위해(hazard)로 인해 잠정적으로 평가된 부정적 결과라 정의하기도 한다(행정안전부, 2010).

위험의 존재는 결과의 불확실성을 만든다. 위험지각은 소비자 행동의 부정적 결과에 따른 경향성이며 부정적 결과가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는 주관적 추측이라 할 수 있다(Cunningham, 1967; Dayour, Park & Kimbu, 2019; Priest, 1990). 이러한 위험지각은 실제 발생한 위험과 다르지만, 자신이 지각한 위험수준이 실제 발생한 위험보다 의사결정에 더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한다(윤설민·오선영·윤선정, 2010). 이러한 이유로 개인에 따라 위험을 지각하는 정도의 차이와 수용범위가 다르게 나타나지만, 위험지각은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 할 수 있다.

학자에 따라서 위험지각을 불확실성과 결과의 심각성으로 또는 결과의 중요성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분석하고 있다(Bauer, 1960). 이러한 불확실성과 결과의 심각성은 각각 기능적 위험, 신체적 위험, 재정적 위험, 사회적 위험, 심리적 위험, 신체적 위험 그리고 시간적 위험 등 세부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Schiffman & Kanuk, 2007). 여러 선행연구에서 위험지각의 유형은 다양하게 분류되었으나, Peter and Tarpey(1975)의 연구에서 제시한 기능적 위험, 신체적 위험, 재정적 위험, 사회적 위험, 심리적 위험, 시간적 위험 등 6가지 유형의 범주에 대부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Schiffman and Kanuk(2007)은 소비자 행동에 대한 경제적 측면에서 소비자는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 존재로서, 새로 구매한 제품이 기존 제품에 비해 매력적이지 않을 경우 저항의 과정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고동완(2003)은 스키활동에 따른 위험지각의 관점에서 위험지각과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성과와 만족을 구성요소로 스키어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위험지각은 긍정적 감정과 성과를 매개로 하여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정적 감정은 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류인평·김영주(2011)는 국외여행의 위험지각이 관광자의 태도와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결과, 관광자의 위험지각은 관광지의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위험지각은 구매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광자는 개인 데이터의 과다 사용, 스마트폰 분실, 제한적 네트워크 연결 또는 데이터 연결 속도의 느림 등 스마트폰 사용시 지각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Khan, Abass, & Al-Muhtadi, 2015). 이전 연구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상황적 요소를 배제한 채 보완이나 사생활 보호와 같은 위험지각에 대해

서만 집중하였다(Kim, Qu, & Kim, 2009; Park & Tussyadiah, 2016). 이에 Dayour et al.(2019)은 디지털 지식으로서 스마트폰의 특성인 이동성, 휴대성, 동시성, 끊임없는 연결성을 언급하며, 이에 따른 현대인들의 기술적 위험을 제시하였다. 즉, 스마트폰은 관광경험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스마트폰 사용 환경은 사용자들에게 위험을 안길 수도 있다. 이러한 현대인들의 행동방식의 변화는 섬 관광에 대한 관광자의 새로운 행동패러다임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광목적지의 스마트폰 활용과 관련하여 Dayour et al.(2019)가 제시한 기술적 위험(Technology risk)을 추가로 구성하였다.

<표 Ⅱ-1> 위험지각의 유형

		기능적 위험	신체적 위험	재정적 위험	사회·심리적 위험	시간적 위험	기타위험 (불만족)
해외 연구	①	●	●	●	●	●	
	②	●	●	●	●	●	
	③	●	●	●	●		
	④	●	●	●	●	●	
	⑤	●		●	●	●	
	⑥	●	●	●	●		
	⑦	●	●	●	●	●	●
	⑧	●	●	●	●		●
국내 연구	⑨		●				
	⑩	●	●	●			
	⑪	●	●	●	●		
	⑫		●		●		
	⑬			●		●	
	⑭	●	●	●	●		
	⑮		●	●	●	●	●
	⑯	●			●	●	
	⑰	●	●	●	●		

자료 : ① Peter & Tarpey(1975) ② Schiffman & Kanuk(2007), ③ Jacoby & Kaplan(1972), ④ Stone & Gronhaug(1993), ⑤ Laroche, McDougall, Bergeron & Yang(2004), ⑥ Zikmund & Scott(1973), ⑦ Rohel & Fesenmaier(1992), ⑧ Moutinho(1987), ⑨ 고동완(2003), ⑩ 김영우(2005), ⑪ 김홍범·윤진영·이재형(2012), ⑫ 정명희·김남조(2006), ⑬ 류주형·엄서호(2001), ⑭ 류인평·김영주(2011), ⑮ 이정자·윤태환(2007), ⑯ 이재섭(2005), ⑰ 박세준(2016)

3. 계획행동이론

계획행동이론은 합리적 행동이론과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의 개념을 토대로 하고 있다. 자기효능감은 심리학자인 Bandura(1977)가 제시한 개념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투입된 노력과 과제의 지속력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이는 어떠한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기대와 신념이라고 하였다. 합리적 행동이론은 인간의 태도를 파악하여 예측할 수 있다는 합리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Fishbein and Ajzen(1975)은 합리적 행동이론에 대해 태도와 주관적 규범을 통해 개인은 행동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주관적 규범에 따라 최선을 선택하여 특정 행동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라 하였다. 반면 합리적 행동이론은 인간은 모든 행동을 스스로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가정의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김문식･김남조, 2013). 즉 합리주의에 기초하여 개인의 행동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한다는 이론의 전제에 대한 타당성이나 적용성의 문제점이 제시되었다(Moan & Rise, 2005).

Ajzen(1991)은 이러한 자기효능감과 행동통제를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 지각된 행동통제를 제시하였고, 이를 합리적 행동이론에 행동의도의 선행변수로 추가하여 계획행동이론으로 발전시켰다. 계획행동이론에 추가된 지각된 행동통제는 개인의 행동에 대한 어려움을 말하며 과거행동의 경험과 예상되는 장애요소(기술, 정보, 시간, 돈 등)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Ajzen, 1991). 즉 계획행동이론은 합리적 행동이론의 한계점을 보완한 이론이다.

관광학 분야에서도 관광자의 관광활동에 대한 행동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인문통계학적 변수나 사전지식, 위험지각 등을 매개변수나 조절변수로 추가한 이론의 확장 연구(성보현･최승담, 2014; 윤설민･오선영･윤선정, 2010; Cheong, Lam & Hsu, 2006)가 이루어지고 있다.

Park, Hsieh and Lee(2017)은 중국대학생들의 일본여행에 대한 의도를 설명하기 위해 이미지와 여행제약 요인을 추가한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하여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태도는 중국대학생들의 일본여행 의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행제약 요인의 중재적 역할은 지각된 행동통제와 여행의도의 영향관계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eong, Ram and Shu(2006)의 중국 소비자의 식사의도에 부정적 입소문이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부정적 입소문은 소비자의 식사의사결정에 유의한 결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보현·최승담(2014)은 계획행동이론에 구조적 관광제약요인을 추가하였고, 사회계층을 매개변수로 적용하여 국제보트쇼 관람객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태도와 지각된 행동통제, 구조적 관광제약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계층의 조절효과는 태도와 구조적 관광제약요인, 참여의도의 관계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 일반계층과 상위계층 등 사회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계획행동이론의 틀 안에서 외적요인으로서 현대인들의 특성으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기술적 위험을 포함한 위험지각을 적용하여 섬 관광에 대한 관광자의 여행행동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4. 지각된 유용성과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perceived usefulness and ease of use)의 개념은 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 개인의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확대되었고, Davis(1989)가 기술수용모델을 제시하며, 기술수용과정에 대한 연구로 적용되고 응용되고 있다(김송이·박주영·정철, 2020). 즉 기술수용모델은 지각된 유용성과 용이성의 개념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현장에서 혁신적 시스템을 수용하는 과정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모델로 제시되었다.

Davis(1989)는 지각된 유용성을 개인이 특정 시스템을 사용할 때 직무향상에 도움을 주는 정도라 정의하였으며, 지각된 용이성은 개인이 특정 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서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정도라 정의하였다. 이는 정보기술이나 혁신제품의 사용에 있어서 필요한 개인의 정신적, 물리적 노력이 감소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McFarland(1999)는 외부변수가 지각된 유용성과 용이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동의도와 간접적인 영향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지각된 유용성과 용이성 개념은 정보통신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수용모델을 적용해 연구되었으며, 최근에는 특히 스마트폰과 관련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남수태·진찬용(2013)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 학회지에 게재된 스마트폰 관련 연구에서 기술수용모델을 적용한 총 50편의 연구에 대해 메타분석을 실시하였고, 대다수의 논문은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출시된 시기인 2009년 이후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대부분의 논문에서 지각된 유용성과 용이성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태도와 행동의도 또한 높은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스마트폰의 사용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언제 어디서나 가족과 친구, 지인들과 소통할 수 있고, 필요한 정보를 즉시 검색할 수 있는 유용성과 용이성이 크게 작용한다고 하였다.

관광분야에서도 지각된 유용성과 용이성의 개념을 중심으로 기술수용모델을 활용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주로 여행과 외식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스마트폰 App(Application)의 수용의도와 활용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강도용･김철원, 2013; 김태호･김학선, 2016; 이태희･박일우, 2013; 조미나･차재빈, 2017), 연구결과, 지각된 유용성과 용이성은 직･간접적으로 태도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또한 스마트폰의 기술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급속한 발전은 관광행태를 변화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여행 중에 금융 관련 업무를 보거나 회사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관광자들에게 스마트폰의 활용은 관광자의 업무처리와 관광활동의 동시 제한성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이는 관광자들의 관광경험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정남호･구철모, 2013).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스마트폰의 영향은 섬 관광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방문의도 등 여행행동에 있어서도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관광자들의 행동패러다임으로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활용의 지각된 유용성과 용이성의 집단 간 차이에 따라 섬 관광에 대한 관광자의 위험지각과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간 차이가 나타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는 현대인들의 특성과 섬 관광에 대한 여행행동 간 영향관계의 설명력을 높일 수 있는 연구로써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5. 방문의도

Fishbein and Ajzen(1975)은 의도에 대해 ‘행동이론의 핵심 개념일 뿐만 아니라, 미래 특정한 행동을 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지와 신념’이라 정의하였다. 행동의도는 의도의 개념을 바탕으로 ‘어떤 행동을 하려거나 또는 하지 않으려는 계획된 의도’로 정의되며, 실증연구를 통해 실제 행동과 동등하거나 이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로 제시되었다(이충기･송학준, 2010; 이태숙･김철원, 2018; Wu, 2006).

박정하(2008)는 호텔 컨벤션 고객의 선택속성 중요도에 대한 지각차이 및 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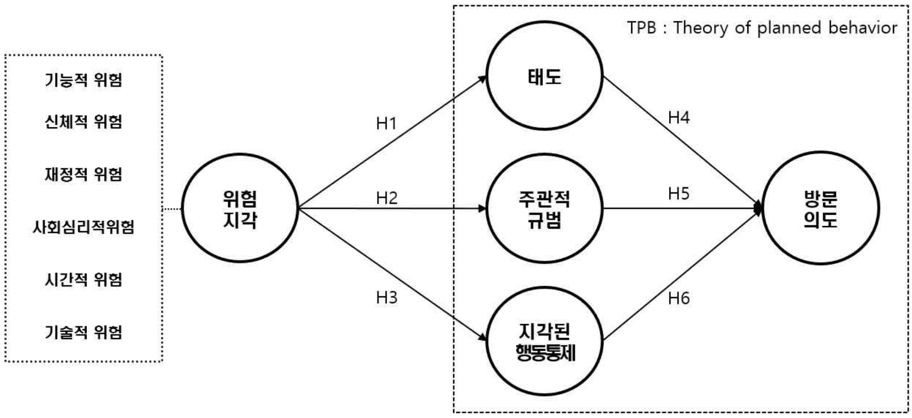
가만족도가 재방문의도와 추천의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고, 호텔 컨벤션 참가유형과 참가동기에 따라 호텔 컨벤션 선택속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참가만족도는 호텔 컨벤션 재방문의도와 추천의사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규명하였다. 이태숙·김철원(2018)은 공정관광 경험이 있는 청산도와 지리산 둘레길 방문객을 대상으로 외부적 시각(Etic)에서 공정관광 목적지에 대한 인식과 태도, 방문의도의 영향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공정관광 목적지에 대한 경제적, 사회·문화적 인식은 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공정관광지에 대한 태도는 방문의도와 유의한 영향관계에 있음을 규명하였다. 이종화(2019)는 스마트폰을 통한 관광정보탐색과 관광지 매력성(서비스성, 지역성), 방문의도 간 영향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고, 스마트폰을 통한 관광정보탐색의 정확성과 유용성, 용이성은 관광지 매력성에 부분적으로 영향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고, 관광지 매력성은 방문의도와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관광분야에서는 관광자의 행동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측정이 용이하고, 예측력이 높은 변수로 행동의도를 사용하고 있으며(Sparks, 2007), 연구대상에 따라 방문의도와 재방문의도. 충성도나 추천의사 등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방문의도는 행동의도의 일환으로 간주되고 있으며(Darnell & Johnson, 2001), 방문의도는 개인의 의사나 계획된 행동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관광행동이 일어날 확률임과 동시에, 개개인이 특정한 관광지를 방문하고 싶어 하는 의지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문의도를 섬 관광지에 대한 방문의도로 설정하였다.

Ⅲ. 연구 설계

1.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본 연구는 섬 관광에 대한 관광자의 위험지각과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방문의도 간 어떠한 영향관계가 나타나는지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현대인들의 행동 패러다임인 스마트폰의 사용과 관련하여, 스마트폰의 지각된 유용성과 용이성의 집단 간 차이가 섬 관광에 대한 관광자의 위험지각과 여행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틀을 설정하고, 연구목적에 맞는 측정항목을



[그림 Ⅲ-1] 연구모형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계획행동이론을 토대로 [그림 Ⅲ-1]과 같이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Tayor(1974)의 연구에서 행동은 다양한 대안들 중에 최적의 대안을 선택한 결과이며, 선택의 결과는 미래시점으로서 개인은 선택의 결과에 대해 불확실성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지각은 개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또한 위험지각과 관련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위험지각은 행동의도에 직접적인 영향관계에 있지 않고,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통제에 영향을 주어 간접적으로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홍범 외, 2012; 윤설민 외, 2010; 허지현, 2007; Zikmund & Scott, 197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섬 관광에 대한 위험지각은 태도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2. 섬 관광에 대한 위험지각은 주관적 규범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3. 섬 관광에 대한 위험지각은 지각된 행동통제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계획행동이론의 태도와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행동의도의 영향관계는 타 분야의 연구를 비롯해 관광분야에서도 유의한 것으로 입증되어 왔다(성보현·최승담, 2014; 송영민, 2005; 윤설민 외, 2010; Hsu & Huang, 2012; Han, 2015). 반면 Quintal, Lee and Soutar(2010)의 연구에서는 태도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문화적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문화적 차이로 영향관계는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태도는 방문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5. 주관적 규범은 방문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6. 지각된 행동통제는 방문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지각된 유용성과 용이성은 주로 정보통신분야에서 연구되어왔는데, 최근 관광분야에서도 연구가 되었다. 가령, 김조영·이충기·김정만(2013)은 지각된 유용성과 용이성이 스마트폰을 통한 관광정보의 수용태도와 관광상품 사용의도, 구매의도 간 영향관계를 살펴보았고, 연구결과, 지각된 유용성과 용이성은 사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사용의도는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한 Dayour et al.(2019)의 연구에서 배낭여행객은 스마트폰 활용을 위한 기반시설이나 네트워크 등 스마트폰 활용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위험지각의 증가와 여행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는 스마트폰의 활용이 결과변수와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음을 나타낸 연구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논의를 토대로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7. 스마트폰 활용의 지각된 유용성과 용이성의 집단 간 차이에 따라 섬 관광에 대한 관광자의 위험지각과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간 차이가 있다.

2. 설문조사 문항 구성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사전조사를 통해 측정항목을 도출하고 정제하였다. 측정항목으로는 위험지각,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지각된 유용성과 용이성, 방문의도,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구성하였다. 측정항목의 세부문항으로 위험지각은 기능적 위험, 신체적 위험, 재정적 위험, 사회·심리적 위험, 시간적 위험, 기술적 위험으로 나누어 총 2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태도와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는 각각 4문항씩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으로 구분하여 6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방문의도는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섬 관광 경험 횟수에 대한 측정항목을 포함하여 5문항으로 구성함으로써 총 5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는 설문문항에 표현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미리 점검하기 위하여 관광학 전문가(교수 2명, 박사 1명)과 개별적 논의를 거쳐 수정·보완하는 정제과정을 거쳤다. 이와 같이 정제된 설문지로 2019년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원에서 20세 이상의 수도권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40부를 배포하여 불성실한 응답지 3부를 제외하고 37부를 사전조사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통계적 신뢰도가 확보되어 본 조사를 위한 최종설문지를 <표 Ⅲ-1>과 같이 하였다.

<표 Ⅲ-1> 설문조사 문항 구성

측정변수		설문문항	출처
위험지각	기능적 위험	• 섬 지역의 숙박시설이나 기반시설이 안전하지 않을 것 같다 • 섬 지역은 교통수단(여객선, 어선 등)이 안전하지 않을 것 같다 • 섬 지역의 의료시설 및 의료기술 수준이 열악할 것 같다 • 섬 관광 중에 사고 시 응급처리 체계가 미숙할 것 같다	김홍범 외(2012), 박세준(2016), Jacoby & Kaplan(1972), Laroche et al.(2004), Peter & Tarpey(1975), Roehl & Fesenmaier(1992), Schiffman & Kanuk(1991)
	신체적 위험	• 섬 관광 중에 강도나 폭행 등이 발생할 것 같다 • 섬 관광 중에 음식으로 인해 탈이 날 것 같다 • 섬 관광 중에 교통수단(여객선, 어선 등)으로 인해 사고를 겪을 것 같다 • 섬 관광 중에 대기오염(미세먼지, 황사 등)으로 건강을 해칠 것 같다	고동완(2003), 김홍범 외(2012), 정명희·김남조(2006), Peter & Tarpey(1975), Roehl & Fesenmaier(1992), Schiffman & Kanuk(2007)
	재정적 위험	• 섬 관광지의 물가가 생각보다 높을 것 같다 • 섬 관광 중에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될 것 같다 • 섬 관광은 예약취소 시 환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 같다	류주형·엄서호(2001), Jacoby & Kaplan(1972), Laroche et al.(2004), Peter & Tarpey(1975), Roehl & Fesenmaier(1992),

측정변수		설문문항	출처
		• 섬 관광보다 다른 곳에 비용을 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Schiffman & Kanuk(2007)
	사회적 심리적 위험	• 섬 관광지에서 비우호적인 행동을 겪을 것 같다 • 섬 관광지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할 것 같다 • 섬 관광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로 인해 섬 관광지 방문이 걱정된다 • 섬 관광지 방문이 만족스럽지 못할 것 같다	류인평·김영주(2011), 정명희·김남조(2006), Jacoby & Kaplan(1972), Laroche et al.(2004), Moutinho(1987), Peter & Tarpey(1975)
	시간적 위험	• 섬 관광정보를 얻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할 것 같다 • 섬 관광 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로 시간이 낭비될 것 같다 • 섬 관광은 시간에 쫓겨 여유로운 여행을 못할 것 같다 • 섬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다	이재섭(2005), 허지현(2006), Peter & Tarpey(1975), Laroche et al.(2004), Schiffman & Kanuk(2007), Zikmund & Scott(1973)
	기술적 위험	• 섬 지역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개인정보가 노출될 것 같다 • 섬 지역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면 과도한 요금이 청구될 것 같다 • 섬 관광지는 모바일 뱅킹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을 것 같다 • 섬 지역은 인터넷이 느리거나 제대로 연결되지 않을 것 같다	Dayour et al.(2019), Roehl & Fesenmaier(1992)
태도		• 섬 관광지에 방문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 섬 관광지에 방문하는 것은 행복한 일이라 생각한다 • 섬 관광지에 방문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 섬 관광지에 방문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김미경·노정희(2006), 김진옥·조월·김남조(2015), 서해란·이충기(2015), 성보현·최승담(2014), 송영민(2005), 윤설민 등(2010), Ajzen & Driver(1992), Hsu & Huang(2012), Quintal et al.(2010)
주관적 규범		•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가족과 친척, 친구, 주변 지인들)은 • 내가 섬 관광지에 방문하는 것을 찬성해 줄 것이다	

<table>
<tr><th colspan="2">측정변수</th><th>설문문항</th><th>출처</th></tr>
<tr><td colspan="2">주관적 규범</td><td>• 내가 섬 관광지에 방문하는 것을 동의해 줄 것이다
• 내가 섬 관광지에 방문하는 것을 지지해 줄 것이다
• 내가 섬 관광지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해 줄 것이다</td><td rowspan="2">김미경·노정희(2006),
김진옥·조월·김남조(2015),
서해란·이충기(2015),
성보현·최승담(2014),
송영민(2005),
윤설민 등(2010),
Ajzen & Driver(1992),
Hsu & Huang(2012),
Quintal et al.(2010)</td></tr>
<tr><td colspan="2">지각된 행동통제</td><td>• 나는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섬 관광지를 방문할 수 있다
• 나는 섬 관광지에 방문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 나는 섬 관광지에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 나는 섬 관광지에 방문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다</td></tr>
<tr><td rowspan="2">기술수용성</td><td>지각된 유용성</td><td>• 스마트폰을 통해 알게 된 관광정보는 나에게 유용하다
• 스마트폰을 통해 알게 된 관광정보는 나에게 효율적이다
• 스마트폰을 통해 알게 된 관광정보는 나에게 활용가치가 있다</td><td>김태구 외(2005),
이승현(2006),
Dayour et al.(2019),
Davis et al.(1989)</td></tr>
<tr><td>지각된 용이성</td><td>• 내가 스마트폰을 통해 관광정보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다
• 나는 스마트폰을 통해 관광정보를 편리하게 찾을 수 있다
• 나는 스마트폰을 통해 관광정보를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td><td>김태구 외(2005),
이승현(2006),
Dayour et al.(2019),
Davis et al.(1989)</td></tr>
<tr><td colspan="2">방문의도</td><td>• 나는 빠른 시일 내에 섬 관광지에 방문할 계획을 세울 것이다
• 나는 빠른 시일 내에 섬 관광지에 방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나는 빠른 시일 내에 섬 관광지에 방문하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 나는 빠른 시일 내에 후 섬 관광지에 방문할 의도가 있다</td><td>성보현·최승담(2014),
이충기·송학준(2010),
이태숙·김철원(2018),
Darnell & Johnson(2001)</td></tr>
<tr><td colspan="2">인구 통계학적 특성</td><td>• 성별, 연령, 학력, 월평균소득, 섬 관광 경험</td><td></td></tr>
</table>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설문문항에 표현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응답자가 이해하기에 모호한 부분이 없는지, 응답의 결과가 연구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지는 않는지 미리 점검함으로써 본 조사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사전조사에 사용한 설문문항은 앞서 살펴본 이론적 고찰을 통해 초기 측정항목을 도출하였고, 각 측정항목에 대해 관광학 전문가(교수 2명, 박사 1명)와 개별적 논의를 거쳐 수정·보완하는 정제과정을 거쳤다. 논의 결과를 통해 초기 측정항목으로 도출된 위험지각 측정항목 중 ‘섬 관광’이라는 일괄적 표현에 대해 ‘섬 지역’과 ‘섬 관광’, ‘섬 관광지’ 등과 같이 측정항목의 내용을 고려하여 적용하였고, 해석이 모호한 측정항목은 명확한 표현으로 보완하였다.

이와 같이 정제된 설문지로 2019년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원에서 20세 이상의 수도권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40부를 배포하여 불성실한 응답지 3부를 제외하고 37부를 사전조사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통계적 신뢰도가 확보되어 본 조사를 위한 최종설문지를 완성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한 모집단은 20세 이상 성인으로 선정하였고, 조사방법은 온라인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온라인조사는 최근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이를 사용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기법으로 이용되고 있으며(이충기, 2011), 비용의 절감과 더불어 표본이 단일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조사자의 직접 대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예방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박세준, 2016). 이에 본 조사는 2019년 10월 23일부터 31일까지 총 500명에게 진행되었고, 표기의 누락 및 모호한 표기 등 불성실한 60명의 응답내용을 제외하였으며, 분석에 적합한 440명의 응답내용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은 SPSS 23.0과 AMOS 23.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측정변수의 적합도를 검증하였으며, 측정문항 간과 요인항목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여 예측가능성, 정확성 등을 살펴보았다. 셋째, 본 연구의 구성개념 간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Ⅳ. 실증분석 결과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모집단은 남성 281명(63.9%), 여성 159명(36.1%)로 조사되었다. 연령은 30대 176명(40.0%), 50대 138명(31.4%), 40대 70명(15.9%)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113명(25.7%)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200-300만원 미만이 98명(22.3%)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이하가 219명(49.8%)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섬 관광 경험의 경우 4회 이상 117명(26.6%), 없음 104명(23.6%), 2회 104명(23.6%)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1>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 분석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281	63.9
	여성	159	36.1
연령	20대	20	4.5
	30대	176	40.0
	40대	70	15.9
	50대	138	31.4
	60대 이상	36	8.2
학력	고졸이하	219	49.8
	대졸	160	36.4
	대학원졸	61	13.9
본수		440	100.0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소득	100만원 미만	113	25.7
	100-200만원 미만	65	14.8
	200-300만원 미만	98	22.3
	300-400만원 미만	76	17.3
	400-500만원 미만	71	16.1
	500만원 이상	17	3.9
경험	없음	104	23.6
	1회	58	13.2
	2회	104	23.6
	3회	57	13.0
	4회 이상	117	26.6
표본수		440	100.0

2. 확인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은 구조모형 적합도를 검증하기 이전에 선행되는 작업으로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절대적합지수인 CMIM(χ^2), RMR, GFI, RMSEA 등과 중분적합지수인 NFI, TLI, CFI 등을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전체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χ^2 =859.226(p=.000), CMIN/df=

1.646, RMSEA=.056, NFI=.926, CFI=.920, GFI=.903, AGFI=.839, TLI=.920, IFI=.952로 나타났다. RMSEA는 0.05∼0.08 사이의 수치로 나타날 경우 모형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허준, 2016). AGFI의 경우에는 적합도에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부적합치는 아니므로 수용하기에 무리가 없으며,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타당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성개념간의 평균분산추출량(AVE)은 <표 Ⅳ-2>와 같이 통계적으로 권장하는 0.5이상으로 나타났다. 개념신뢰도는 0.7이상일 경우에 집중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우종필, 2012), 본 연구에서는 0.74 이상으로 나타나 개념신뢰도가 검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관측변인들의 유의수준을 나타내는 p값은 p<.001수준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Ⅳ-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분	경로			표준화 계수	S.E.	C.R.	p	AVE	개념 신뢰도	Cronbach's α
위험 지각	재정적 위험	→	높은 기회비용	.814	Fix	Fix		0.604	0.888	.876
			예약취소시 환불걱정	.793	.060	17.949	***			
			예상 못한 비용지출	.827	.057	18.871	***			
			물가가 높을 것	.772	.063	17.373	***			
	사회적 심리적 위험	→	만족스럽지 못할 것	.739	Fix	Fix		0.592	0.886	909
			부정적 뉴스	.911	.061	19.523	***			
			서비스 불친절	.882	.058	18.898	***			
			비우호적 행동	.869	.057	18.585	***			
	기능적 위험	→	응급처리체계 미숙	.603	Fix	Fix		0.508	0.798	.823
			의료시설 열악	.682	.104	11.075	***			
			교통수단 불안전	.813	.108	12.283	***			
			숙박시설 불안전	.825	.119	12.350	***			
	시간적 위험	→	섬 관광은 시간낭비	.671	Fix	Fix		0.566	0.881	.848
			시간에 쫓기며 여행	.810	.081	14.269	***			
			예상치 못한 시간낭비	.746	.075	13.400	***			
			정보습득 시간소비	.844	.077	14.628	***			
	기술적 위험	→	네트워크 접속 문제	.842	Fix	Fix		0.668	0.857	.811
			미흡한 폰뱅킹시스템	.886	.054	21.091	***			
			개인정보 노출	.711	.061	16.254	***			
	신체적 위험	→	대기오염 걱정	.779	Fix	Fix		0.591	0.748	.669
			교통사고 걱정	.674	.073	6.995	***			

구분		경로	표준화 계수	S.E.	C.R.	p	AVE	개념 신뢰도	Cronbach's α
주관적 규범		→ 중요한 사람들 추천	.649	Fix	Fix		0.660	0.915	.865
		→ 중요한 사람들 지지	.816	.075	14.256	***			
		→ 중요한 사람들 동의	.865	.072	14.836	***			
		→ 중요한 사람들 찬성	.858	.073	14.759	***			
지각된 행동통제		→ 방문할 경제력	.762	Fix	Fix		0.728	0.931	.897
		→ 방문할 시간	.889	.069	19.697	***			
		→ 방문할 여유	.894	.069	19.818	***			
		→ 언제든지 방문	.767	.065	16.646	***			
태도		→ 긍정적으로 생각	.768	Fix	Fix		0.650	0.906	.808
		→ 가치 있는 일	.759	.062	15.931	***			
		→ 행복한 일	.830	.056	17.513	***			
		→ 좋다고 생각	.753	.057	15.808	***			
기술수용성	지각된 유용성	→ 활용가치 있음	.652	Fix	Fix		0.746	0.897	.716
		→ 효율적임	.863	.092	14.114	***			
		→ 유용함	.799	.081	13.617	***			
	지각된 용이성	→ 찾는 것 쉬움	.863	.073	12.733	***	0.710	0.831	.767
		→ 언제든지 찾음	.863	.073	12.733	***			
방문 의도		→ 방문할 의도	.578	Fix	Fix		0.616	0.886	.803
		→ 방문에 대한 확신	.825	.120	11.746	***			
		→ 방문을 위한 노력	.835	.122	11.775	***			
		→ 방문할 계획	.637	.133	10.191	***			
χ^2=859.226(p=.000), CMIN/df=1.646, RMSEA=.056, NFI=.926, CFI=.920, GFI=.903, AGFI=.839, TLI=.920, IFI=.952									

***p<.001

측정항목의 내적 일관성은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α)계수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크론바하 알파 값은 측정항목들 간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 주는데, 크론바하 알파 값이 0.6 또는 0.7 이상이면 구성개념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고 평가된다(이충기, 2011). 본 연구의 섬 관광에 대한 위험지각과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지각된 유용성과 용이성, 방문의도의 크론바하 알파 값은 모든 영역에서 0.7이상으로 나타나 신뢰기준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타당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구성개념 간 독립성이 유지되는지를 알 수 있는 판별타당성은 AVE 값과 상관계수의 제곱 값을 비교하여 AVE 값이 상관계수의 제곱 값보다 클 경우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간주한다(우종필, 2012). 본 연구의 검증결과는 <표 Ⅳ-3>과 같이 구성개념 간 상관계수의 제곱 값이 AVE 값보다 작게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

<표 Ⅳ-3> 상관관계 분석

	재정적 위험	사회적 위험	기능적 위험	시간적 위험	기술적 위험	신체적 위험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방문 의도
재정적 위험	1											
사회적 위험	-.223*** (.050)	1										
기능적 위험	-.145*** (.021)	-.181*** (.033)	1									
시간적 위험	-.422*** (.178)	-.036 (.013)	-.265*** (.070)	1								
기술적 위험	-.428*** (.183)	-.053 (.028)	-.276*** (.076)	-.977*** (.955)	1							
신체적 위험	-.247*** (.061)	.480*** (.230)	-.016 (.026)	-.117* (.014)	-.136*** (.019)	1						
태도	-.194*** (.038)	-.031 (.096)	-.242*** (.059)	-.229*** (.052)	-.231*** (.053)	-.079 (.062)	1					
주관적 규범	-.192*** (.037)	-.184*** (.034)	-.014 (.020)	-.106* (.011)	-.100* (.010)	-.251*** (.063)	-.524*** (.275)	1				
지각된 행동통제	-.276*** (.076)	-.168*** (.028)	-.248*** (.062)	-.294*** (.086)	-.310*** (.096)	-.041 (.020)	-.662*** (.438)	-.486*** (.236)	1			
지각된 유용성	-.275*** (.076)	-.224*** (.050)	-.148*** (.022)	-.168*** (.028)	-.155*** (.024)	-.046 (.021)	-.428*** (.183)	-.341*** (.116)	-.514*** (.264)	1		
지각된 용이성	-.174*** (.030)	-.076 (.058)	-.132*** (.017)	-.200*** (.040)	-.203*** (.041)	-.039 (.015)	-.379*** (.144)	-.237*** (.056)	-.427*** (.182)	-.637*** (.406)	1	
방문의도	-.279*** (.078)	-.255*** (.065)	-.077 (.059)	-.192*** (.037)	-.206*** (.042)	-.116* (.014)	-.411*** (.169)	-.332*** (.110)	-.465*** (.216)	-.723*** (.523)	-.785*** (.616)	1
AVE	-.604	-.592	-.508	-.566	-.668	-.591	-.650	-.660	-.728	-.746	-.710	-.6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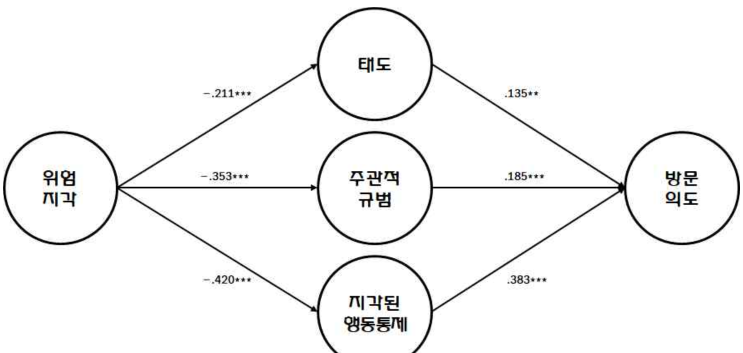
*p<.05, **p<.01, ***p<.001, ( )의 값은 상관계수의 제곱

또한 법칙타당성은 설정한 가설에 대한 방향성과 유의성으로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섬 관광에 대한 위험지각과 태도요인의 관계의 상관계수는 r=-.169으로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p<.001), 주관적 규범과의 관계도 r=-.263로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5), 지각된 행동통제와의 관계 역시 r=-.341으로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태도요인과 방문의도의 관계는 r=.411으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관적 규범과 방문의도의 관계도 r=.332로 정(+)의 관계를 가지며, 지각된 행동통제와 방문의도의 관계에서도 r=.465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법칙타당성도 모두 유의한 수준에서 확보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3. 모형의 적합도

본 연구에서는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델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사회과학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절대적합지수와 증분적합지수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구조모형의 분석결과는 [그림 Ⅳ]와 <표 Ⅳ-4>와 같이 나타났다.

절대적합지수 판단을 위한 분석결과는, CMIN/df=1.436, GFI .960, RMR .021, RMSEA .016으로 나타났고, 증분적합지수의 판단을 위한 분석결과는, NFI .942, TLI .938, CFI .970로 나타났다. 이에 모든 지표가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확인되어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1] 구조모형 검증

<표 Ⅳ-4> 모형적합도 분석결과

	CMIN/df	GFI	RMR	RMSEA	NFI	TLI	CFI
적합도 지수	1.436	.960	.021	.016	.942	.938	.970
수용기준	3 이하	0.9 이상	0.05 이하	0.1 이하	0.9 이상	0.9 이상	0.9 이상

4. 가설검증

본 연구의 [가설 1∼3]을 검증한 결과는 <표 Ⅳ-5>와 같이 섬 관광에 대한 관광자의 위험지각은 태도와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1]의 경우, 기능적 위험지각이 태도에 미치는 표준화 경로계수는 -.244($p<.001$)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시간적 위험지각은 -.175 ($p<.001$), 기술적 위험지각은 -172($p<.001$)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반면 신체적, 재정적, 사회·심리적 위험지각은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의 경우, 섬 관광에 대한 관광자의 위험지각이 주관적 규범에 미치는 표준화 경로계수에서는 기능적, 신체적, 재정적, 사회·심리적, 시간적 위험지각이 부(-)의 경로계수로 나타났으나, 재정적 위험지각만이 -.129로 $p<.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3]의 섬 관광에 대한 관광자의 위험지각과 지각된 행동통제 간의 관계에서 기능적(-.228, $p<.001$), 재정적(-.124, $p<.05$), 사회·심리적(-.133, $p<.01$), 시간적(-.216, $p<.001$), 기술적 위험지각(-.229, $p<.001$)은 지각된 행동통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술적 위험지각은 지각된 행동통제에 가장 큰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Dayour et al.(2019)의 연구에서와 같이 스마트폰 사용 환경의 중요성을 검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반면 신체적 위험지각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적 위험지각에 대해서는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신념에 의해 행동실행의 장애를 적게 겪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설 4∼6]인 태도와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와 방문의도 간의 영향관계 가설을 검증한 결과, 태도와 방문의도 간 표준화 경로계수는 0.135($p<.05$)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지지되었다. 주관적 규범과 방문의도는 .185($p<.001$)로 나타났고, 지각된 행동통제 또한 방문의도와의 표준화 경로계수가 .383($p<.001$)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표 Ⅳ-5> 연구가설 1~6의 검증결과

가설	경로	표준화 경로 계수	SE	t	p	지지 여부
1-1	기능적 위험지각 → 태도	-.244	.051	-4.470	***	지지
1-2	신체적 위험지각 → 태도	.124	.025	1.441	.150	기각
1-3	재정적 위험지각 → 태도	-.091	.042	-1.794	.073	기각
1-4	사회·심리적 위험지각 → 태도	.030	.033	.603	.546	기각
1-5	시간적 위험지각 → 태도	-.175	.050	-3.358	***	지지
1-6	기술적 위험지각 → 태도	-.172	.040	-3.391	***	지지
2-1	기능적 위험지각 → 주관적 규범	-.050	.045	-.978	.328	기각
2-2	신체적 위험지각 → 주관적 규범	-.185	.035	-1.490	.136	기각
2-3	재정적 위험지각 → 주관적 규범	-.129	.041	-2.531	.011*	지지
2-4	사회·심리적 위험지각 → 주관적 규범	-.039	.032	-.797	.426	기각
2-5	시간적 위험지각 → 주관적 규범	-.085	.047	-1.661	.097	기각
2-6	기술적 위험지각 → 주관적 규범	.000	.037	.007	.994	기각
3-1	기능적 위험지각 → 지각된 행동통제	-.228	.045	-4.311	***	지지
3-2	신체적 위험지각 → 지각된 행동통제	.085	.017	1.378	.168	기각
3-3	재정적 위험지각 → 지각된 행동통제	-.124	.038	-2.532	.011*	지지
3-4	사회·심리적 위험지각 → 지각된 행동통제	-.133	.030	-2.771	.006**	지지
3-5	시간적 위험지각 → 지각된 행동통제	-.216	.045	-4.211	***	지지
3-6	기술적 위험지각 → 지각된 행동통제	-.229	.036	-4.593	***	지지
4	태도 → 방문의도	.135	.045	2.592	.010*	지지
5	주관적 규범 → 방문의도	.185	.048	3.474	***	지지
6	지각된 행동통제 → 방문의도	.383	.053	6.580	***	지지

*p<.05, **p<.01, ***p<.001

본 연구에서는 [가설 7]을 검증하기 위해 스마트폰의 지각된 유용성과 용이성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집단 간 차이 검증에 앞서 스마트폰의 지각된 유용성과 용이성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평균값 초과 집단을 고 집단으로 분류하였고, 평균값 미만 집단을 저 집단으로 분류하여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표 Ⅳ-6> 참조).

<표 Ⅳ-6> 지각된 유용성과 용이성에 따른 집단 분류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지각된 유용성	4.015152	0.608946	2	5
지각된 용이성	3.734091	0.733029	1.5	5

주) 평균값은 리커트 5점 척도에 기초함

분석결과, 첫째, 섬 관광에 대한 관광자의 위험지각과 태도 간 구조적 관계에서 기능적 위험지각과 신체적 위험지각에서는 지각된 유용성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각된 유용성이 높은 집단일수록 섬 관광에 대한 위험지각과 태도 간 구조관계에 영향을 보다 강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섬 관광에 대한 관광자의 위험지각과 주관적 규범 간 구조적 관계에서 지각된 유용성이 낮은 집단은 모든 경로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지각된 유용성이 높은 집단의 경우에는 사회·심리적 위험지각과 기술적 위험지각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각된 유용성이 낮은 집단의 경우 스마트폰을 통한 섬 관광정보의 유용성보다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변인들의 동의와 추천 등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지각된 유용성이 높은 집단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스마트폰을 통한 섬 관광정보가 규범적 신념과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변인들의 의견보다 강하게 나타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섬 관광에 대한 관광자의 위험지각과 지각된 행동통제 간 영향관계는 신체적 위험지각에서 두 집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지각된 유용성이 낮은 집단의 경우에는 기능적 위험지각에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폰을 통한 섬 관광정보에 있어서 섬 지역의 시설과 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지각된 유용성이 높은 집단의 경우에는 재정적, 사회·심리적 위험지각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유용한 섬 관광정보에 대해 보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행동수행 능력이 나타난 것이라 사료된다. 한편 섬 관광자의 시간적 위험지각은 태도와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에 있어서 지각된 유용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Ⅳ-7> 참조).

<표 Ⅳ-7> 지각된 유용성 집단 간 영향관계

구분	경로				표준화 경로계수	S.E	C.R.	p	영향 관계
저	위험 지각	기능적	→	태도	-.173	.061	-2.539	.011*	유
		신체적			-.137	.067	-2.012	.044*	유
		재정적			-.068	.051	-1.012	.311	무
		사회·심리적			.118	.047	1.795	.073	무
		기술적			-.120	.055	-1.820	.069	무
고	위험 지각	기능적	→	태도	-.324	.074	-3.847	***	유
		신체적			-.275	.070	-3.587	***	유
		재정적			-.087	.066	-1.212	.226	무
		사회·심리적			-.192	.046	-2.674	.007**	유
		기술적			.042	.060	.592	.554	무
저	위험 지각	기능적	→	주관적 규범	-.032	.062	-.516	.606	무
		신체적			-.026	.069	-.421	.674	무
		재정적			-.110	.053	-1.773	.076	무
		사회·심리적			.068	.048	1.133	.257	무
		기술적			-.058	.056	-.946	.344	무
고	위험 지각	기능적	→	주관적 규범	.074	.045	.884	.377	무
		신체적			-.138	.046	-1.695	.090	무
		재정적			-.076	.045	-.954	.340	무
		사회·심리적			-.408	.042	-3.825	***	유
		기술적			.275	.048	2.994	.003**	유
저	위험 지각	기능적	→	지각된 행동통제	-.213	.058	-3.195	***	유
		신체적			-.185	.064	-2.795	.005**	유
		재정적			-.030	.047	-.473	.636	무
		사회·심리적			-.120	.044	-1.911	.056	무
		기술적			-.120	.051	-1.897	.058	무
고	위험 지각	기능적	→	지각된 행동통제	-.133	.041	-1.632	.103	무
		신체적			-.358	.047	-3.991	***	유
		재정적			-.249	.043	-3.066	.002**	유
		사회·심리적			-.162	.028	-2.130	.033*	유
		기술적			-.150	.037	-1.945	.052	무

*p<.05, **p<.01, ***p<.001

지각된 용이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 검증에서는 지각된 용이성이 낮은 집단의 경우, 모든 경로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반면 지각된 용이성이 높은 집단의 경우에는 신체적 위험지각과 기술적 위험지각에서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각된 용이성이 높은 집단은 섬 관광에 대한 정보를 언제든지 쉽게 찾을 수 있으나 이러한 정보는 섬 관광에 대한 부정적 정보와 더불어 섬 관광목적지의 스마트폰 사용 환경에 대한 정보의 부재가 섬 관광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사료된다.

위험지각과 주관적 규범 간 구조적 관계에서 지각된 용이성이 낮은 집단의 경우, 위험지각과 태도 간 영향관계와 같이 모든 경로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각된 용이성이 높은 집단의 경우에는 신체적 위험지각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각된 용이성이 높은 집단의 경우, 신체적 위험에 있

<표 Ⅳ-8> 지각된 용이성 집단 간 영향관계

구분	경로				표준화 경로계수	S.E	C.R.	p	영향 관계
저	위험 지각	신체적	→	태도	-.054	.066	-.717	.473	무
		재정적			-.112	.061	-1.496	.135	무
		기술적			.016	.051	.219	.827	무
고	위험 지각	신체적	→	태도	-.322	.076	-4.457	***	유
		재정적			.070	.051	1.084	.278	무
		기술적			-.230	.061	-3.461	***	유
저	위험 지각	신체적	→	주관적 규범	.124	.065	1.606	.108	무
		재정적			-.124	.060	-1.630	.103	무
		기술적			-.092	.050	-1.248	.212	무
고	위험 지각	신체적	→	주관적 규범	-.302	.080	-3.734	***	유
		재정적			-.022	.053	-.305	.760	무
		기술적			-.007	.061	-.094	.925	무
저	위험 지각	신체적	→	지각된 행동통제	-.049	.069	-.686	.493	무
		재정적			-.012	.063	-.174	.862	무
		기술적			-.124	.053	-1.818	.069	무
고	위험 지각	신체적	→	지각된 행동통제	-.198	.036	-1.430	.153	무
		재정적			.440	.113	3.134	.002**	유
		기술적			.312	.035	2.016	.044*	유

*p<.05, **p<.01, ***p<.001

어서는 규범적 신념이나 사회적 압력보다 스마트폰을 통한 관광정보가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위험지각과 지각된 행동통제 간 구조적 관계에서는 지각된 용이성이 낮은 집단의 경우, 앞서 분석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과 마찬가지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각된 용이성이 높은 집단의 경우에는 재정적 위험지각과 기술적 위험지각이 정(+)의 영향관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각된 용이성이 높은 집단은 섬 관광에 대한 정보를 언제든지 쉽게 찾을 수 있으므로, 섬 관광에 대한 재정적 위험과 기술적 위험이 지각되더라도 자신이 실행하고자 하는 행동에 대한 통제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섬 관광자의 기능적 위험지각과 사회･심리적 위험지각, 시간적 위험지각은 태도와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에 있어서 지각된 용이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결과는 <표 Ⅳ-8>과 같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섬 관광에 대한 관광자의 위험지각과 여행행동 간 영향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스마트폰 활용의 지각된 유용성과 용이성의 집단 간 차이에 따라 섬 관광에 대한 관광자의 위험지각과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로 나타난 섬 관광에 대한 위험지각과 여행행동 간 영향관계는 고동완(2003)과 Jacoby and Kaplan(1972), Schiffman and Kanuk(2007)의 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광목적지에 대한 관광자의 위험지각은 여행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지지하였다. 특히 Jacoby and Kaplan(1972)과 Stone and Gronhaug(1993)의 연구에서 위험의 상대적 중요성이 모두 같을 수 없고, 상황에 따라서 어떤 위험은 다른 위험보다 더 영향력이 클 수 있다고 언급한 내용을 지지하였다. 가령 가설 1~3의 결과에서, 위험지각 요인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이 모두 태도와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었으며, 위험요인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독립변수인 위험지각이 다양한 결과변수에 부정적 영향관계에 있는 반면, 위험지각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이 결과변수에 미치는 영향관계는 다르게 나타난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김홍범 외, 2012; 류주형･엄서호, 2001; 류인평･김영주, 2011; 박세준, 2016; 허지현,

2007; Laroche et al., 2004; Moutinho, 1987; Zikmund & Scott, 1973). 이는 위험요인이 관광자들에게 단일차원으로 지각되지 않으며,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가설 4~6의 태도와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미경·노정희(2006)의 연구를 비롯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특히 Cheong et al.(2006)의 연구와 윤설민 등(2010)의 연구결과와 같이 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관계에 있음을 본 연구에서도 검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현대사회의 관광자는 스마트폰의 이동성, 휴대성, 정보성, 동시성, 끊임없는 연결성이라는 특성을 통해 행동방식이 변화되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특히 관광자의 스마트폰 사용 수준이 높을수록 지각된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Dayour et al.(2019)의 선행연구를 근거로 가설 7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스마트폰의 사용수준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섬 관광에 대한 위험지각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지각된 용이성은 스마트폰의 사용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유의한 영향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스마트폰의 사용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만 영향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Dayour et al.(2019)과 정남호·구철모(2013)의 연구에서와 같이 관광자에게 스마트폰의 활용은 관광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를 통해 관광자의 스마트폰 활용의 지각된 유용성과 용이성 집단 간 섬 관광에 대한 위험지각과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간 차이를 검증함과 동시에 현대인들의 관광행동 패러다임과 스마트폰의 사용에 대한 연관성을 검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섬 관광에 대한 관광자의 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은 섬 관광지 방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요인을 줄이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에 있어서는 하드웨어적 개선을 비롯하여 섬 관광안전과 관련한 일련의 프로세스 구축과 스마트폰을 포함한 관광서비스의 체계화 등 위험예방과 관리, 관광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종합적 관점의 관광안전 전략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관광자가 이에 대한 정보를 경험할 수 있는 효율적 홍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면, 섬 관광자의 기능적 위험지각 중 의료시설과 의료기술 수준, 응급처리 체계 등에 대한 불확실성의 해소는 감기와 배탈 등 일반질병과 사고로 인한 재해의 유형과 분류에 따라 어느 장소(약국, 보건소, 병원 등)에서 어떤 전문가(약사, 의사. 간호사 등)가 어떠한 방

법(약 처방, 응급처치, 수술, 응급수송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광정보가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스마트폰 활용의 지각된 유용성과 용이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한 결과 활용수준에 따라 섬 관광에 대한 관광자의 위험지각이 여행행동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현대인들의 관광행동 패러다임과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섬 관광자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든지 쉽게 관광정보를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와 채널 등을 통한 정보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령 국내·외에서 가장 높은 소통매체로 활용되고 있는 SNS 등의 매체와 채널을 통해, 섬 관광자의 관점에서 관광활동 중에 필요한 정보를 그래픽과 디자인, 이미지 등을 적용하여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섬 관광목적지의 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정보와 섬 관광을 경험한 관광자들의 긍정적 평가 등을 복합적으로 구성한 정보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섬 관광대상에 따른 정보제공의 차별화에 대한 필요성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지각된 유용성과 용이성이 낮은 집단은 높은 집단에 비해 섬 관광에 대한 위험을 강하게 지각한다. 따라서 스마트폰의 사용수준이 낮은 집단에게는 오프라인 또는 TV, 라디오 등의 적극적 정보제공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스마트폰의 사용수준이 높은 집단은 스마트폰 App 또는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유튜브 등 스마트폰 활용도가 높은 매체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정보제공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기존의 섬 관광 관련 연구들은 섬 관광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지각 관점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계획행동이론을 토대로 섬 관광에 대한 관광자의 위험지각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이론의 확장을 시도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섬 관광에 대한 관광자의 위험지각 하위요인에서 현대인들의 특성을 적용하기 위해 스마트폰의 활용과 관련한 요인을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하고 개념적·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기존 연구와 차별화 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섬 관광경험 이전 관광자의 내면적 요인과 방문의도의 영향관계를 확인하였다. 섬 관광에 대한 관광자의 위험지각은 지각된 행동통제, 다시 말해 자신의 행동수행 능력에 대한 확신에 가장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계획행동이론의 모형 적합성을 추가적으로 검증하였으며,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에 대

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제시하였다. 셋째, 현대인들에게 스마트폰의 활용은 관광행태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관광경험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섬 관광에 대한 관광자의 위험지각과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간 스마트폰의 지각된 유용성과 용이성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로서, 현대인들의 여행행동에 있어서 스마트폰의 활용과 사용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데 의의를 갖는다.

한편 본 연구는 설문조사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섬 관광경험 빈도와 기회가 상대적으로 낮고 스마트폰의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자를 선별하기 위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섬 지역과 지리적 거리와 시간에 따라 위험지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섬 관광목적지의 경우 가족·친척·친구 등의 거주 여부, 방문목적, 방문기간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향후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섬 관광과 관련한 안전사고와 재해에 대한 정보의 축적은 섬 관광에 대한 결과의 불확실성의 증가로 섬 관광목적지 방문 자체를 회피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섬 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개발의 실효성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섬 관광에 대한 관광자의 불확실성 해소는 섬 관광활성화를 위해 가장 근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강도용, 김철원, “여행업 ERP시스템의 기술 수용모델(TAM) 적용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제37권 제2호, 2013, pp.119-140.

강봉룡, “섬의 인문학 담론: 섬과 바다의 일체성과 양면성의 문제”, 『도서문화』, 제44권, 2014, pp.7-35.

강신겸, “커뮤니티 중심의 섬관광 개발”, 『경남발전』, 제121권, 2012, pp.24-34.

고동완, “스키활동에서 위험지각과 감정적 반응이 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제27권 제2호, 2003, pp.49-69.

김문식, 김남조, “외식업체의 저탄소 경영에 따른 고객의 태도와 행동연구”, 『호텔경영학연구』, 제22권 제4호, 2013, pp.195-216.

김미경, 노정희, “겨울스포츠 참가의도 예측: 계획행동이론의 확대 적용”, 『관광연구』, 제21권 제2호, 2006, pp.155-172.

김민철, “한국 도서관광의 매력요인 분석: 도서의 관광콘텐츠 유형에 따른 관광매력요인의 차이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2007.
김선태, “한국 현대시와 섬: 공간적 인식과 의미를 중심으로”, 『국어문학』, 제59권 제59호, 2015, pp.197-221.
김재호, “재난사고에 따른 크루즈관광 위험지각과 태도의 차이분석: 세월호 사고를 중심으로”, 『관광경영연구』, 제20권 제6호, 2016, pp.190-128.
김조영, 이충기, 김정만, “스마트폰 기반 관광정보 수용과 관광상품 구매의도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제27권 제6호, 2013, pp.15-38.
김준, “우리나라 섬의 특징과 잠재력”, 『국토』, 제8권, 2011, pp.6-13.
김진옥, 조월, 김남조, “중국의 근대 문화유산인 홍색성이 중국관광객의 북한관광 의사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적용”. 「관광학연구」, 제39권 제1호, 2015, pp.163-180.
김태구, 이재형, 이혜숙, “호텔정보시스템 이용행동에 대한 경로분석: 기술수용모델(TAM)의 응용”. 『관광학연구』, 제28권 제4호, 2005, pp.313-334.
김태호, 김학선, “수정된 기술수용모델을 이용한 푸드테크산업 소비자의 배달앱 기술수용의도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제40권 제5호, 2016, pp.127-144.
김향자, 『섬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김홍범, 윤진영, 이재형, “해외여행의 위험지각과 주관적 규범이 태도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호텔관광연구』, 제14호 제1권, 2012, pp.67-81.
남수태, 진찬용, “기술수용모델 개념 간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 우리나라 학회지에 게재된 스마트폰 연구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제8권 제4호, 2013, pp.67-79.
조선일보 [웹사이트], Retrieved from https://www.chosun.com, 검색일: 2019.03.18.
류인평, 김영주, “관광 위험지각과 관광자 태도 및 구매의도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제26권 제1호, 2011, pp.149-168.
류주형, 엄서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여행상품 구매시 지각위험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제25권 제2호, 2001, pp.97-113.
박세준, 『컨벤션 개최국의 위험지각, 이미지, 방문의도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방문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2016.
성보현, 최승담,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통한 관광행동 영향요인 분석: 구조적 관광제약과 사회계층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제38권 제2호, 2014, pp.79-101.
송영민, “계획행동이론(TPB)을 통한 생태관광가이드라인(Eco-tourism guideline)의 효과분석: 갯벌체험활동 참가 청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2권 제4호, 2005, pp.473-487.
송재호, 김향자, “섬 관광개발의 측정척도에 관한 연구: 제주도 4개 섬을 대상으로”, 『관광학연구』, 제42권 제10호, 2018, pp.215-236.
우종필,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아카데미, 2012.

윤설민, 오선영, 윤선정, “계획행동이론(TPB)을 활용한 내국인의 해외여행 의도에 관한 영향관계 연구: 사전지식과 지각된 위험의 추가적인 역할을 중심으로”, 『호텔경영학연구』, 제19권 제6호, 2010, pp.289-307.
이재섭, “여행정보원천에 따른 정보신뢰와 지각위험”. 『관광경영학연구』, 제9권 제2호, 2005, pp.185-211.
이진의, 『IPA기법을 활용한 섬 생태관광지 개발과 관리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2013.
이진의, 강신겸, “IPA기법을 활용한 섬 생태관광지 매력요인 분석: 여수 금오도를 중심으로”, 『도서문화』, 제25권 제2호, 2013, pp.63-82.
이충기, 『관광조사통계분석』, 서울: 대왕사, 2011.
이충기, 송학준,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이용한 갬블링열정과 행동의도간 구조관계 분석”, 『관광학연구』, 제34권 제3호, 2010, pp.125-145.
이태숙, 김철원, “Etic 관점에서의 공정관광 목적지에 대한 인식, 태도, 행동의도간의 영향 연구”, 『관광학연구』, 제42권 제1호, 2018, pp.31-48.
이태희, 박일우, “확장된 기술수용모델(ETAM)에 따른 여행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수용과 확산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제37권 제6호, 2013, pp.287-308.
임승빈, 『환경심리 행태론: 환경설계의 과학적 접근』, 서울: 보성문화사, 1998.
정남호, 구철모,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전략: 사회적 실재감 유형별 차이분석”, 『정보시스템연구』, 제22권 제1호, 2013, pp.115-141.
정명희, 김남조, “모험성 레크리에이션에서의 통제소재와 전문화 및 위험지각의 관계: 스쿠버다이버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제30권 제4호, 2006, pp.27-46.
조미나, 차재빈, “배달 앱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와 행동의도: 기술수용모델(TAM)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제37권 제6호, 2017, pp.287-308.
조승아, 김상운, “관광지 위험지각에 대한 낙관적 편견이 관광지 전환의도 및 위험감소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제42권 제10호, 2018, pp.175-190.
최성환, “섬사람들의 탈경계적 공간인식과 지적전통: 유교이념과 신안군 사례를 중심으로”, 『도서문화』, 제41권 제41호, 2013, pp.243-271.
한국인터넷진흥원, https://www.kisa.or.kr/public/library/etc_List.jsp.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201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백서』, 2010.
허준, 『허준의 쉽게 따라하는 AMOS 구조방정식 모형-기초편』, 서울: 한나래출판사, 2016.
허지현, 『관광위험지각이 관광행동선호와 관광지전환의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부정적 감정성향의 조절효과』,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2007.
Ajzen, I.,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rocesses 50(2), 1991, pp.179-211.

Bandura, 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77, pp.191-215.

Bauer, R. A., “Consumer behaviour and risk taking. In R. S. Hancock (Eds.). Dynamic Marketing for a Changing World,” Chicago: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1960, pp.389-398.

Beck, U.,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홍성태 역)”, 서울: 새물결, (원본출판연도 1992), 2014.

Cheng, S., Lam, T., and C. H. C. Hsu, “Testing the sufficiency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 case of customer satisfaction response in restaurants”, *International Journal of Hospitality Management* 24(4), 2005, pp.475-492.

Cunningham, S., “The Major Dimension of Perceived Risk,” Ha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 1967.

Darnell, A. C. and P. S. Johnson, “Repeat visits to attractions: A preliminary economic analysis”, *Tourism Management* 22(2), 2001, pp.119-126.

Davis, F. D.,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and user accept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MIS Quarterly* 13(3), 1989, pp.319-340.

Dayour. F., Park. S. W., and A. N. Kimbu, “Backpackers’ perceived risks towards smartphone usage and risk reduction strategies: A mixed methods study”, *Tourism Management* 72, 2019, pp.52-68.

Dowling, G. R. and R. Staelin, “Perceived risk: The concept and its measurement”, *Psycholigy and Marketing* 3(1), 1994, pp.193-210.

Fishbein, M. and I. Ajzen,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Wesley, 1975.

Han, H., “Travelers' pro-environmental behavior in a green lodging context: Converging value-belief-norm theory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ourism Management* 47, 2015, pp.164-177.

Hsu, C. H. C. and S. Huang, “An extens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model for tourists”, *Journal of Hospitality & Tourism Research* 36(3), 2012, pp.390-417.

Jacoby, J. and L. Kaplan, “The Components of Perceived Risk. In Association for Consumer Research Proceedings(ed),” Venkatesan, M., University of Chicago, 1972, pp.382-392.

Laroche, M., McDougall, G. H. G., Bergeron, J., and Z. Yang, “Exploring how intangibility affects perceived risk”, *Journal of Service Research* 6, 2004, pp.373-389.

McFarland, D. J., “The Particularization of Computer-efficacy and its Influence on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A Field Study,” Doctoral Dissertation. Drexel University, 1999.

Moan, I. S. and J. Rise, “Quitting smoking: Applying and extended vers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o predict intention and behavior”, *Journal of Applied Biobehavioral Research* 10(1), 2005, pp.39-68.

Moutinho, L., “Consumer behavior in tourism”,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21(10), 1987, pp.5-44.

Peter, J. P. and L. X. Tarpey, “Behavioral decision making: A comparison of three model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2(1), 1975, pp.119-121.

Priest, G. L., “The new legal structure of risk control”, *Daedalus* 119(4), 1990, pp.207-227.

Quintal, V. A., Lee, J. A., and G. N. Soutar, “Risk, uncertainty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 tourism example”, *Tourism Management* 31(6), 2010, pp.797-805.

Roehl, W. and D. Fesenmaier, Risk perceptions and pleasure travel: An exploratory analysis. Journal of Travel Research, 30(4), 1992, pp.17-29.

Schiffman, L. G. and L. L. Kanuk, *Consumer Behavior*(5th ed.), New Jersey: Prentice Hall, 2007.

Sparks, B., “Planning a wine tourism vacation? Factors that help to predict tourist behavioural intentions”, *Tourism Management*, 28(5), 2007, pp.1180-1192.

Stone, R. and K. Gronhaug, “Perceived risk: Further considerations for the marketing discipline”,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27(3), 1993, pp.39-50.

Stone, R. and F. Winter, “Risk in buyer behavior contexts: A clarification,” *Faculty Working Paper* 1216 EWP 860505, College of Commerce and Business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Illinois, IL, December, 1985.

Taylor, J. W., “The role of risk in consumer behavior”, *Journal of Marketing*, 38(1), 1974, pp.54-60.

Wang, D., Park, S., and D. R. Fesenmaier, “The Role of Smartphones in Mediating the Touristic Experience”, *Journal of Travel Research*, 51(4), 2011, pp.371-387.

Wu, S. I., “A comparison of the behavior of different customer clusters towards Internet bookstores”, *Information & Management*, 43(8), 2006, pp.986-1001.

Zikmund, W. G. and J. E. Scott, “A Multivariate analysis of perceived risk self-confidence and information sources”, *Advance in Consumer Research*, 1, 1973, pp.406-445.

<Abstract>

The Influence of Tourists' Risk Perception on Travel Behavior toward Island Tour

− Focusing on the Differences between Groups of Perceived Usefulness and Ease of Use −

Jineui Lee

Ph.D, School of tourism, Hanyang University, Korea

Namjo Kim

Professor, School of tourism, Hanyang University, Korea

This study sought to establish how the danger perception of tourists on island tourism affects travel behavior. In addition, it sought to apply perceived usefulness and ease of use factors to empirically approach the utilization effect of smartphones, the behavioral paradigm of modern people. The analysis results, first,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tourist's risk perception of island tourism affects attitudes, subjective norms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Second, attitudes, subjective norms and perceived control of behavior have been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ntention of the visit. In particular,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nd willingness to visit also have a high influence. Third, the difference between tourists' perception of risk and attitude toward island tourism, subjective norms, and perception of usefulness and ease between the control of perceptual behavior has been shown to be partially significant. This research suggests that the resolution of uncertainty due to the danger perception of tourists on island tourism is the most fundamental task to revitalize island tourism.

Key Word: Island Tourism, Risk Perception, Theory of Planned Behavior, Perceived Usefulness and Ease of Use, Intention to Visit

논문접수일 : 2021.11.18
심사완료일 : 2021.12.27
게재확정일 : 2021.12.28